

居伐牟羅와 耽牟羅

南 豐 鉉 *

I

1988년 蔚珍鳳坪新羅碑가 발견되고 필자도 그 공동조사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조사할 때 '居伐牟羅'라는 지명을 발견하고 매우 큰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牟羅'라는 단어는 梁書新羅傳(629)에 '新羅에서는 城을 일컬어 健牟羅라고 한다'고 한 것이 떠올랐다. 이 두 단어에서 우리는 '牟羅'라는 단어를 추출할 수 있는데 牟羅는 梁書에 한번 나타날 뿐 三國史記의 地理志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 국어학의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居伐牟羅'와 '健牟羅'에 의하여 牟羅가 삼국시대에 쓰이던 단어였다는 사실을 추정하고 난 이후 삼국사기에서 '耽牟羅'라는 기록을 발견하고 이 단어가 우리의 문헌에도 나타남을 보고 기뻐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오랜 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었는데 이 번에 그 기회를 얻어 그 동안 생각하여 오던 것을 披瀝하여 보고자 한다.

II

蔚珍鳳坪新羅碑는 丹陽新羅赤城碑(540년대 추정)보다도 앞서는 것으로 법흥왕 11년(524, 甲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비문에 居伐牟羅는 다음과 같이 4번 나타난다.

• 檀國大學校 名譽教授

1) 拙著(2000), 『吏讀研究』, 태학사, 101면 참조.

- 1) 居伐車羅 男彌只 本是奴人
- 2) 居伐車羅 道使 辛洗 小舍帝智
- 3) 居伐車羅 尼牟利 一伐
- 4) 居伐車羅 異知巳 下干支

이를 살펴보면 우리는 車羅라는 단어가 쓰인 居伐車羅가 어떤 규모의 聚落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1)에서 男彌只는 이 비문에 '男彌只村 使人'이라는 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村名임을 알 수 있다. 1)의 표현은 男彌只村이 居伐車羅에 속하는 하위 聚落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니 車羅는 村보다는 큰 단위의 마을임을 알 수 있다. 2)에는 居伐車羅가 道使가 있는 지역임을 말하여 준다. 道使는 신라의 서울에서 파견한 지방관리이다. 村에는 使人이 있는데 車羅에는 道使가 있으니 車羅는 후대의 縣이나 그보다 큰 행정단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3), 4)는 이 지역에 지방의 官等を 가진 사람이 3명 이상 살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이 비문에는 '悉支 道使'도 나타난다. 悉支는 뒤의 三陟郡으로 지증왕 6년에는 州로도 승격되었던 곳이고 이 비문에 '悉支 軍主'가 나타난다. 이로 보면 居伐車羅는 이 지역에서 悉支에 버금할 만한 비교적 큰 행정단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居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 것인지는 명쾌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다만 伐이라는 말은 신라의 지명에 '徐耶伐, 沙伐, 音汁伐' 등과 같이 비교적 큰 지역의 이름에 쓰였고 '仇火縣, 巴火縣, 居知火縣, 達句火縣'과 같이 訓假字 '火'로도 널리 쓰인 것이니 이 또한 비교적 큰 취락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또 백제의 서울을 '居拔城'이라고 한 것을 보아도 '居伐'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취락의 규모는 작은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Ⅲ

車羅는 日本書紀에 任那(加羅)와 新羅의 지명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알려져 있다.²⁾ 즉 일본서기의 색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지명이 나타난다.

2) 『日本書紀索引』, 吉川弘文館, 東京, 1979 4版, 269면 이하 참조.

居伐牟羅와 耽牟羅

- 1) 伊斯枳牟羅城(任那)
- 2) 久斯牟羅(任那)
- 3) 久陀牟羅塞(新羅)
- 4) 久禮牟羅城(新羅)
- 5) 騰利枳牟羅(任那)
- 6) 包那牟羅(任那)
- 7) 牟羅積牟羅

등이 있고 ‘汶慕羅(任那)’도 이에 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을 다시 살펴보면 1), 4)는 城의 이름이고 3)은 塞의 이름이다. 1), 5), 7)에는 枳자가 쓰였는데 이는 우리의 차차표기법에서 只가 ‘기’로 읽히는 것과 같이 일본서기에서는 ‘키/ki’로 읽고 있다. 이 ‘ki’는 백제의 지명에서 흔히 쓰인 것이니 三國史記의 百濟地名에 다음의 용례들이 나타난다.

奴斯只縣 豆仍只縣 所力只縣 多只縣 古祿只縣

이 ‘只’는 結己郡, 奈己郡에서는 ‘己’로도 쓰였다. 이는 일본의 학자들에 의하여 일찍부터 城을 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고³⁾ 국내에서도 城을 의미하는 백제어의 *ki(己, 只)가 고대일본어에 차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伊斯枳牟羅城은 ‘伊斯枳’라는 본래의 城名에 새로운 시대의 용어인 ‘牟羅’라는 칭호가 덧붙었고 여기에 또 새 시대의 용어인 ‘枳(城)’이 붙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牟羅를 城과 같은 것으로 보면 이 지명은 城의 개념을 갖는 용어가 3번이나 중복된 것이다. 한 지명에 3種의 城名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 지역의 통치상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牟羅라는 용어는 단순히 민간에서만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라 三韓時代에는 行政上의 용어로 쓰여 여러 지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牟羅의 뒤에는 ‘塞’가 쓰인 예와 ‘城’이 쓰인 예가 함께 나타난다. 이는 牟羅가 城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要害의 뜻으로도 사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3) 柳尙熙著(1980), 『日本における朝鮮語の研究』, 成甲書房, 東京, 186면 및 202면 참조.

4)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37~38면 참조.

牟羅는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城의 이름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었다. 1777년에서부터 100여년에 걸쳐서 간행되었다고 하는 「倭訓栞」의 ‘むら(村)’ 조에는

(むら(村))는 (한자의) 村邑을 읽을 때 쓰는 말이다. 郡居의 뜻이다. 日本紀에 城을 牟羅 라고 쓴 것은 三韓의 말이다.

라고 하였다.⁵⁾ 이는 牟羅가 日本書紀에서 城의 뜻으로 쓰였음을 말하고 이것이 일본어의 mura(村)와 같은 말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어의 mura(村)의 어원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mura가 牟羅와 어원이 같으리라는 암시는 일본의 明治시대 이후의 학자들에 의하여 무시되고 말았다. 그들은 일본어의 mura를 한국어의 ‘마을’에 대응시켜 파악하였다.⁶⁾ 이는 양국의 현대어에서 대응하는 단어를 찾고자 한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어의 ‘마을’은 중세국어의 ‘막술’에 소급하는 것으로 mura와는 어형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마을’과 ‘mura’는 직접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를 대응시킨 것은 ‘牟羅/모라’라는 단어가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고 한국의 문헌에서도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던 데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정은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어의 mura의 어원이 한국어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6세기 초의 금석문에서 牟羅를 확인함으로써 韓日 두 언어에 공통되는 단어를 새로 찾게 된 것은 이 방면의 연구를 위하여 새로운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IV

梁書 新羅傳에서

신라의 俗語에서는 城을 健牟羅라고 한다.⁷⁾

고 한 것은 이제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城의 고유어는 ‘갯’이

5) 柳尙熙著(1980), 26-27 면 참조.

6) 柳尙熙著(1980), 179면 및 202면 참조.

7) 其俗呼城曰健牟羅.

있으므로 '健牟羅'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지 못하여 이 기록에 대하여는 어떠한 해석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牟羅의 어형과 뜻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기록을 考究해 보기로 한다.

우선 健牟羅의 '健'이 어떠한 뜻인가를 이해해야 이 기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健'의 뜻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國內의 자료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 여기서 周書(636) 百濟條에

왕의 성은 夫餘氏인데 於羅瑕라고 칭하고 백성들은 韃吉之라고 부른다.⁸⁾

라고 한 韃吉之의 '韃'을 연상하게 된다. 健과 韃는 음상이 비슷할 뿐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에 쓰였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이 韃吉之에 대하여 白鳥庫吉은 日本書紀에 자주 나타나는 'コニキシ[konikisi]'와 같은 것으로 보고 韃에 해당하는 '코니'는 '대'의 뜻인 '큰'으로, 吉之에 해당하는 '키시'는 '것'으로 보았다.⁹⁾ 河野六郎도 '코니'에 대하여는 같은 것으로 보고 キシ에 대하여는 '君'의 뜻으로 보아 이 칭호를 '大君'의 뜻으로 해석하였다.¹⁰⁾ 河野六郎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자는 健, 韃를 우리말의 '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견해를 옳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이는 고대국어에서 族長의 칭호로 쓰인 '韓', '干'과 어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다만 이 韓, 干은 관형형이 아니라 동명사형이 발달하여 명사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¹¹⁾ 健과 韃는 중국 중고음에서 gian과 kian으로서 聲에 차이가 있으나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의 구별이 없는 우리말에서는 같은 음이다.

이와 같이 보면 健牟羅는 '큰 牟羅'로 해석할 수 있으니 牟羅는 城에 준하는 취락으로서 城이나 防禦를 위한 要塞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다. 이는 고대사회에서는 행정의 중심이 되므로 자연 주변의 주민이 모여드는 취락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일본어에서는 'mura'로 차용되었고 그 의미와 聚落의 크기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8) 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韃吉之.

9) 柳尙熙著(1980), 116면 참조.

10) 河野六郎(1980), 古事記에 있어서의 漢字使用, 『河野六郎著作集』, 平凡社, 後 28면 이하 참조.

11) 이 현상은 '얼다(并)'의 동명사형 '어른'이 명사화하여 '成人'의 뜻으로 쓰이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V

耽牟羅는 삼국사기에서 유일하게 牟羅가 쓰인 지명이다. 이제 內外史書에 나오는 이 지명에 대한 기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東城王 20년, 498년] 왕이 耽羅가 貢賦를 바치지 않으므로 친히 정벌하려고 武珍州에 이르렀다. 耽羅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었으므로 중지하였다.[耽羅는 곧 耽牟羅이다.]¹²⁾
- 2) [威德王 36년, 589년] 隋나라가 陳나라를 평정하였다. 戰船 1척이 耽牟羅國에 표류하여 왔다. 그 배가 돌아갈 때 나라의 경계를 지나게 되었다. 왕이 필요한 물건을 후하게 주고 아울러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진나라를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高祖가 좋게 여겨 조서를 내렸다.¹³⁾
- 3) [隋書 百濟條] 陳을 평정한 해에 한 戰船이 海東 耽牟羅國에 표류하여 이르렀다. 그 배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百濟를 지나게 되었다. 昌(威德王)이 필요한 물건을 후하게 주고 아울러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진나라를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高祖가 좋게 여겨 조서를 내렸다.¹⁴⁾
- 4) [高麗史 耽羅縣條] (시조의) 15대손인 高厚, 高淸 형제 3인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耽津에 이르렀다. 이 시대는 신라가 盛할 때로 짐작된다. …… 신라왕이 가상히 여겨 長子를 星主, 둘째를 王子, 끝을 都內라 하였다. 邑號를 耽羅라 하였는데 대개 올 때는 처음에 耽津에 정박하기 때문이다. …… 三國遺事의 海東安弘記에는 9韓을 열거하였는데 耽羅가 4번째에 있다. 百濟 文周王 2년(476년)에 耽羅國 使者에게 恩率 벼슬을 주었다. 東城王이 그 20년에 耽羅가 貢賦를 바치지 않아 친히 정벌하기 위하여 武珍州에 이르렀다. 耽羅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죄를 빌었으므로 그만두었다. 그 註에 耽羅는 곧 耽

12)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三國史記』卷26, 東城王 20年條)

13) 隋平陳 有一戰船 漂至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國界 王資送之 甚厚 并遣使奉表 賀平陳. 高祖善之 下詔.(『三國史記』卷27 威德王 36年條)

14) 平陳之歲 有一戰船 漂至海東 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百濟 昌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 賀平陳. 高祖善之 下詔(『隋書』百濟條).

牟羅라고 하였다. …… 肅宗 10년 耽羅를 耽羅郡으로 고쳤다.¹⁵⁾

5)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郡名 耽羅, 毛羅, 耽毛羅, 東瀛洲.

이 기록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의 註 ‘耽羅는 곧 耽牟羅이다’는 耽羅가 耽牟羅에서 바뀐 말임을 말한다. 이는 이 기사보다 근 100년 후의 기록인 2)에서 耽牟羅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耽羅는 耽牟羅의 tammora, 또는 tamora에서 제2음절의 ‘mo’ 또는 ‘으’음이 탈락하여 이루어진 말로 보아야 한다. 耽羅에서 ‘mo/牟’음이 첨가되어 耽牟羅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언어발달의 법칙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1)의 기사는 통일신라 이후에 기록된 것을 삼국사기에 옮겨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720년에 이루어진 日本書紀에 耽羅가 20여회나 쓰인 것을 보면 이 때에 이미 耽牟羅는 ‘tamra’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3)의 耽牟羅國은 2)의 耽牟羅/tammora가 삼국시대에 쓰이던 말임을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다. 耽은 珊과 같은 글자로 唐韻에 ‘他酣切’, 集韻과 韻會에 ‘他甘切’로 나온다. 우리 음으로는 ‘담’이다.

4)는 고려시대까지 전해 오는 耽羅의 역사를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는 耽羅에 관계된 것만을 추린 것이다. 여기서 ‘邑號를 耽羅라 하였는데 대개 올 때는 처음에 耽津에 정착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耽羅라는 명칭의 어원을 풀이한 것이어서 흥미를 끈다. 여기서 ‘耽津’은 육지에 있는 항구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耽羅’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보는 것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신라가 성할 때’라고 한 것은 신라가 통일되고 약 100년 간으로 보이는데 삼국시대에 耽牟羅라는 말이 있었으므로 이 어원은 후대에 지어낸 민간어원적인 설명으로 생각된다. 三國遺事에 毛羅라는 명칭이 쓰였고 이것이 耽羅의 異稱으로 본 것도 음미할 만한 것이다. 毛은 차자표기의 원칙에서 보면 tak보다는 그 입성말음을 탈락시킨 ta로 읽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耽羅의 고행이 ‘毛牟羅/tamura’였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5)의 耽毛羅는 耽牟羅의 후대의 표기이다. 牟자는 삼국시대에 자주 쓰인 音假字이고 毛자는 고려시대의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音假字이다.

이상에서 볼 때 삼국시대에 耽牟羅였던 제주의 이름이 통일신라시대에 耽羅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형이 바뀌었다는 것은 牟羅라는 단어가 이미

15) 『高麗史』 卷57, 53면~55면 참조.

통일신라시대에는 소멸되었거나 그 세력이 극히 약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형의 변화는 그 어원이 상실되었을 때 흔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耽牟羅는 행정적으로 백제에 속하여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牟羅라는 단어가 伽倻나 新羅 지역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제에서도 사용되었음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VI

종래 우리의 史書에서는 단편적으로 나타나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牟羅라는 단어가 52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蔚珍鳳坪新羅碑에 나타남으로써 고대국어의 한 단면을 밝히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금석문에 6세기초에 이 명칭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명칭이 이 시대에 신라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散在해 있던 牟羅의 용례를 찾아 보면 蔚珍鳳坪新羅碑(524년 추정)에 '居伐牟羅'가 4회, 日本書紀(720년)에 '汶慕羅'를 합하여 8례, 梁書 新羅傳(629년)에 '健牟羅'가 나오고 三國史記(1145년)에 百濟 東城王 20년(498년)과 威德王 36년(589년)의 기사로 '耽牟羅'가 2회 나온다.¹⁶⁾ 이를 종합하면 모두 11종의 예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을 통하여 논의한 것을 정리하고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 1) '牟羅'는 城이나 防衛의 要塞로 쓰이는 聚落을 나타내는 말이다.
- 2) 이 단어는 주로 伽倻와 新羅에서 사용하던 말인데 '耽牟羅'는 백제에서도 이 말이 쓰였음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주로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 쓰이던 말이 아닐까 한다. 廣開土大王碑에 백제에서 뺏은 城 가운데 '古牟婁城'이 나타나고 이 성이 中原高句麗碑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쓰인 '牟婁/moru'가 남방의 '牟羅'에 대응하는 말이 아닐까 한다. 즉 남방에서는 牟羅, 북방에서는 牟婁가 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이 牟羅는 三韓時代에서부터 삼국시대까지 쓰이다가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오면 소멸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대에 '耽牟羅'가 '耽羅'로 바

16) 이 耽牟羅는 『隋書』(636년) 百濟條에 躬牟羅, 高麗史에 耽牟羅, 『新增東國輿地勝覽』에 耽毛羅로도 나온 앞에서 말했다.

居伐牟羅와 耽牟羅

편 것이 이 사실을 말하여준다. 어형의 변화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상실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4) 일본어의 mura(村)는 이 牟羅와 어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초기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것인데 후에 현대국어의 '마을'에 대응시키게 된 것은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새로운 금석문의 자료가 나와서 이 추정을 뒷받침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5) '耽牟羅'는 제주의 주민이 삼국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三韓系의 민족이었고 그 文化圈에 속하여 있었음을 강력하게 말하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